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7년 12월 31일(주일) 제1178호

2018년 온누리교회 표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진은 이웃사랑 실천하는 대형 사랑애포럼.

2017년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 회개와 갱신, 종교개혁 되새겨

송구영신예배 및 신년예배를 각 캠퍼스 본당에서 드린다.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는 송구영신예배를 오후 7시, 9시, 11시에 드린다. 부천, 수원, 인천은 오후 9시와 11시, 대전, 남양주, 평택, 강동, 양지는 오후 11시에 드린다.

신년예배는 서빙고와 양재 오전 9시 30분과 11시 30분, 부천 오전 9시, 수원과 대전 오전 9시 30분, 인천 오전 11시에 드린다. 남양주, 평택, 강동, 양지는 신년예배가 없다.

2017년 온누리교회는 '돌이키면 살아나리라'를 표어로 내걸고, 겸손과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달려왔다. 특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교회 안팎에서 회개와 갱신,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기는 노력을 많이 했다.

2018년 온누리교회 표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아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처럼 되는 한 해를 꿈꾸고 있다.

2018년 주요 목회계획은 1월 7일과 14일 선교헌금작정, 1월 29일~2월 1일까지 목회사관학교, 3월 고난주간 십야예배, 5월 러브소나타 샷포로 집회, 6월 마리아행진, 7월 여름아웃리치, 8월 하용조 목사 소천 7주기, 10월 부흥축제, 11월 러브소나타 후쿠오카 집회 등이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송구영신예배·신년예배 일정

캠퍼스	송구영신예배	신년예배
서빙고	오후 7시 오후 9시 오후 11시	오전 9시 30분 오전 11시 30분
양재	오후 7시 오후 9시 오후 11시	오전 9시 30분 오전 11시 30분
부천	오후 9시 오후 11시	오전 9시
수원	오후 9시 오후 11시	오전 9시 30분
인천	오후 9시 오후 11시	오전 11시
대전	오후 11시	오전 9시 30분
남양주	오후 11시	-
평택	오후 11시	-
강동	오후 11시	-
양지	오후 11시	-

2018년 선교헌금 작성

7일, 14일 ... 헌금, 중보기도, 재능기부

2018년 선교헌금 작정을 한다. 1월 7일과 14일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2018년 선교헌금 작성 행사'가 실시된다.

선교헌금 작성행사에는 예배에서 나눠주는 작성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참여하면 된다. 중보기도와 재능기부 후원도 할 수 있다.

선교헌금은 자동이체(CMS)나 현금봉투 방식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올해 처음으로 자동이체 방식을 선택한 성도는 '신규 작성란'에 가입하고, 기존에 자동이체를 하고 있던 성도들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소속 캠퍼스, 성명, 휴대폰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및

생년월일을 빠짐없이 기입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란'에도 표시해야 한다.

현금봉투 방식을 선택한 성도는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작성금액을 적고, 선교헌금 봉투를 수령할 캠퍼스도 선택해야 한다. 현금봉투 방식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므로 연장을 원하는 성도들은 다시 작성해야 한다.

재능기부 후원은 선교사자녀 돌봄, 기도편지 편집, 선교사 케어, 홈 셰어링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 문의: 02-3215-3616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주기도문·사도신경 새번역 버전 사용한다

2018년부터 온누리교회도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새번역 버전을 사용한다. 새번역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2004년 12월 3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가 공동으로 합의하고 공포한 것이다. 750년 공인된 원문(Forma Recepta)에 충실하되 신학적 검증과 현대 문어체로 바꾼 것이 특징이다.

김재석 목사(예배본부)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새번역은 기존에 사용하던 어렵고, 옛날식 표현 대신 현대 어법에 맞게 수정해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읽고 이해하기 쉽다"면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새번역 버전은 한국 교회가 널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온누리교회

도 이에 발맞춰 사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13면>.

온누리교회 조직도 홈페이지 게재

'2018년 온누리교회 조직도'는 신문으로 발행하지 않고, 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1월 14일부터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2018 온누리교회 조직도'를 내려 받을 수 있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www.onnuri.org)

특집 2018년 선교헌금 작정을 앞두고

“모두 안산M센터 덕분이에요!”

예수 만나고 인생이 180도 달라진 이주민들

2018년 선교헌금 작정을 앞두고 온누리교회 선교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특별한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 이번 순서는 ‘이주민 사역’ 이야기다. 온누리교회 이주민 사역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통째로 달라진 이주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온누리교회 이주민 사역의 중심 안산M센터에서 그 주인공들을 만났다.



비케 전도사(왼쪽) 가족과 아마 자매(오른쪽) 가족.

지난 24일, 안산M센터에서도 성탄축하 행사가 한창이었다. 17개 이주민 공동체 400여 명의 성도들이 축하행사에 참석해서 연극, 워십댄스, 특송 등을 선보이며 한바탕 잔치를 벌였다. 그곳에서 만난 이주민 모두가 예수 만나고 삶이 변화된 주인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몽골어예배를 섬기고 있는 비케 형제와 아마 자매는 특별한 간증이 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두 가지다. 하나는 예수 만나고 인생이 180도 달라졌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년 3월 신학대학원 입학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배워서 고국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꿈이다.

약방의 감초 ‘비케 전도사’

비케 형제는 안산M센터 몽골어예배를 섬기는 전도사다. 그는 원래 불교 신자였다. 2006년 한국에 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예수를 만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다. 그는 늘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살았다. 방황하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2007년이었다.

“몽골에서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싶었어요.”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았다. 그래서 스님들을 찾아갔다. 천국에 가는 꿈을 꿔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그런데 스님들이 속 시원하

게 답을 주지 못했다. 며칠을 고민하다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생각나서 물었더니 안산M센터에 가보라고 했다. 마침 그때 온누리교회에서 이주민들을 위해 개최하고 있는 설날집회가 한창이었는데 그곳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믿기지 않을 만큼 큰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져서 수련회가 끝나자마자 몽골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 목사님은 천국 가는 꿈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다.

“비케 형제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날부터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매일 두 시간씩 꼬박 꼬박 기도를 하고 찬양을 했다. 그렇게 좋아하던 술과 담배도 한 번에 끊었다. 삶의 기쁨을 오직 예수 안에서 찾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 안산M센터 몽골어예배에서 약방의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비케 형제의 변화는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됐다. 한 번은 비케 형제의 누나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다. 비케 형제는 기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가족들에게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복음을 전했다. 누나는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 일을 계기로 온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집안에 가득 하던 다른 종교용품은 이제 눈을 씻고 찾아

봐도 볼 수 없다. 기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비케 형제는 온누리교회 추석집회에서 아내 우리 자매를 만났다. 금쪽같은 아들 영광이, 찬양이, 축복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아마 그가 안산M센터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런 기쁨과 행복은 맛보지 못했을 것이다. 비케 형제는 자신이 만난 너무 좋은 예수님을 더 많은 몽골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꿈이다. 그래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전도이다.

“한국에 있는 몽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몽골로 돌아가 교회를 세울 거예요. 그 다음 계획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몽골인 디아스포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주셨거든요.”

아마 자매와 크리스마스

아마 자매도 안산M센터 몽골어예배에서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180도 달라졌다. 그녀가 처음 교회에 나온 것은 2014년 크리스마스다.

아마 자매는 몽골에서 중고등학교 교사였다. 그러다 2013년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를 따라 한국에 왔다. 한국산업과학기술대학교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웠는데 그때 안산M센터 몽골어예배를 섬기던 니마 형제를 만났다.

“교회에서 연말에 파티를 하는데 와보지 않겠냐고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크리스마스 예배에 갔는데 그동안 교회에 쌓였던 편견

이 다 깨져버렸어요.”

아마 자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믿을게 없어서 뭐라도 의지하고 싶어 찾은 대상이 예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처음 가본 교회는 너무나도 따뜻했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따뜻함이었다.

“교회 입구에서부터 웃으면서 안아주고 반겨주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어요. 교회에 계속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안산M센터에 도움 받은 것도 정말 많았어요.”

안산M센터에 오면 고향 사람들도 있고, 친절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봉사자와 목회자들이 많았다. 그녀는 하루하루 예수 믿는 재미를 붙여갔다. 그러면서 신앙이 조금씩 성장했다. 그리고 2015년 2월 겨울 캠프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리고 기도제목이 하나 생겼다.

“저희 어머니도 예수님 만나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고는 저희 엄마를 위로할 수 없거든요. 아버지 병수발 하느라 집이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 가르치려고 엄청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녀는 늘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이따금 전화로 어머니께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쉽게 변하지 않았다. 무당들을 찾아다니며 평화를 빌었고 점을 쳤다. 지난해 아마 자매가 딸 마랄을 낳으면서 어머니가 한국에 왔다.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안산M센터 몽골어예배에 갔어요. 수많은 이주민들이 안산M센터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저희 어머니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머니의 한마디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딸아 내가 그렇게 힘들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에 감사하구나.’”

도움을 받기 위해 안산M센터를 방문했던 아마 자매가 이제는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고, 내년에는 비케 형제와 함께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다.

비케 형제와 아마 자매는 이주민들을 대표해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안산M센터 덕분이에요. 안산M센터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행복한 삶을 꿈꾸지 못했을 거예요.”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성탄을 맞이하는 대림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통로로 쓰임 받은 인물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보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보여 주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 후반부에 “아담은 오실 분(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정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최초의 인간입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다마’입니다.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고, 아담에 이어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둘째 아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에 속한 사람이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첫 사람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는 이유는 인간의 대표자로서 모든 인류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첫 번째 단어는 ‘한 사람’입니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열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열세 번 나오는 번역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한 번 이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이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모든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자로서의 중요성을 뜻합니다. 한 사람과 모든 인류가 하나로 묶여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원문에는 ‘이와 같이’, ‘또한 마찬가지로’라는 보충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아담이 이렇게 하였으므로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러하시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담의 행위와 그리스도의 행위가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의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영향을 미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모든 인류에 예외 없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7세기 존 돈(John Donne)이라는 사람의 시에서 자주 기억되고 인용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의 섬이 아니다. 전적으

로 자신만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주된 몸체의 한 부분이다. (중략) 어느 사람의 죽음도 나를 더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나는 인류에 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종이 누구를 위해 울리는지 알려고 하지 말라 그것은 그대를 위하여 울리나니”

우리 모두는 한 인류이고, 아담 한 사람에게서 동일한 영향력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모든 인류의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 권위와 영향력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반복되고 있는 단어는 ‘왕 노릇’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할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죽음 안에서 왕 노릇 한 것처럼 은혜도 의로 인해 왕 노릇 해 주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17~21절).

왕노릇이라는 단어는 한글성경에는 세 번 나오지만 원문에서는 다섯 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왕 노릇이라고 표현한 의도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왕 노릇에서 왕이라는 것은 왕정 시대에 왕의 권위인데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권위입니다. 왕의 절대적 통치와 영향력 같이 첫째 사람 아담의 영향력은 절대적이고,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도 절대적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반복되고 있는 단어는 ‘더욱 많이 넘친다’입니다. 같은 의미를 세 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더욱 많이 넘친다’는 표현이 여섯 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비교해서 어느 한쪽의 영향력이 더욱 넘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쪽이 어떻게 더욱 많은 영향을 넘치도록 미치는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첫째 사람 아담의 영향력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님의 영향력의 범위는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의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첫째 아담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고, 둘째 아담은 우리를 행복하고 복되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아담이 모든 사람에게 미친 불행한 영향력이 어떤 것입니까? 바울은 세 단계로 첫

째 아담의 불행한 영향력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창조 세계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죄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죄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그럴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만약 인간이 죄를 선택할 권리를 없게 만드셨거나 죄를 지으려는 의도조차 행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으면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만약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은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인격적인 순종, 자발적 순종, 자유 의지를 통하여 드러지는 순종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자유의지의 인간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둘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는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죽음을 세상에 가지고 왔습니다. 죽음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죄가 들어오는 문이 되었듯이 죄는 사망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사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사망과 영적인 사망이 그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명령을 어기는 순간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지는 않았습니 다. 그러나 그 순간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셋째, 이와 같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첫 사람 아담만의 사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학자들이 엄청난 논쟁을 합니다. 모방했다는 것이냐 참여했다는 것이냐를 논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방했다고 하면 원죄가 부인되는 것입니다.

5세기 수사 펠라기우스가 “원죄는 없다”고 주장하는 유명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의 주장에 올바른 대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조상인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우리의 자연적인 조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대표로서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계시의 도구가 되었던 예복처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죽지 않았다고 말하는 역사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는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에 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약속을 맺으실 때는 모든 후손들과 약속을 맺으신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죄와 사망,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아

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유전적인 현상을 봐도 조상의 죄가 자녀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15절), 심판은 한 사람에게 의해 정죄에 이르렀으며(16절),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 왕 노릇했습니다(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18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19절).

많은 사람들과 철학자들이 이것을 벗어보려고 노력 합니다. “어떻게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느냐?”며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담의 영향력은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절대적 영향력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이유

오늘 본문에는 이와 정반대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복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되는 은혜의 선물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해 생긴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해 정죄에 이르렀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됩니다”(롬 5:16).

둘째 아담 예수가 세상에 오심으로 아담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들어온 죄들을 씻고 의롭게 함으로 은혜의 선물을 이 세상에 가져왔습니다. 둘째 아담의 영향력 또한 절대적입니다.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제는 생명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 노릇 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할 것입니다”(17절).

첫째 아담은 사망을 세상에 가져와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 안에 가져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3면에 계속)

기획 2018년을 점(占)치다?

2018년을 점(占)치다?

한국은 점술공화국 ... 운명은 사주팔자에 좌우되지 않는다
미신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진짜 믿음 필요

새해는 언제나 설레지만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기도 한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이 앞서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고자 점(占)을 본다. 매
년 연말연시만 되면 점집이 호황을 누리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수많은 도사, 보살,
철학관, 사주카페에 들러 새해운세를 묻고, 점을 치고, 굿을 해서 한 해 동안 무병
장수와 운수대통을 기원한다. 단언컨대 이들은 모두 미신(迷信)이고 우상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크리스천들도 미신에 빠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결혼
전에 궁합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사하는 날을 점치고, 부적도 산다. 선교대국
한국의 또 다른 이름은 점술공화국이다. 부끄러운 낯이 아닐 수 없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A자매(32세, 청년부)는 2년 전 생전 처음으로 점(占)을 봤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서른 살이 되니까 갑자기 마음이 싱숭생숭
해지더라고요.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가 운명
의 짝인지 회의도 들었고, 아직도 하고 싶었거
든요. 날마다 한숨이 나올 정도로 속이 답답했
어요. 그래서 신 내릴 받는 지 얼마 안 됐다는
처녀보살을 찾아갔어요. 나중에 보니 그 처녀
보살의 말이 하나도 맞는 게 없었지만 큰 위로
가 됐어요.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주는 것도 좋
았고요. 나중에 결혼할 때 궁합도 볼 생각이예
요. 궁합 좋다는 말을 들어야 안심이 될 것 같
거든요.”

B자매(41세, 타교회)는 새해운수를 보려고
용하다고 소문난 도사를 찾아갈 계획이다. 자
녀들이 성장하면서 돈이 많이 필요한데 사업
이 생각보다 잘 안 돼서 불안하기 때문이다.

“작년에 부동산 투자를 잘못해서 돈을 좀 잃었어요. 타격이 컸어요. 그날 이후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활하고 있는데도 돈은 없고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점집에 가기로 했어요. 제 미래가 너무 궁금하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고 싶거든요.”

C형제(37세, 청년부)는 새해만 되면 토성비
결을 보러 다니는 누나를 전도하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그 이
유는 누나가 다니는 점집에 매년 점을 보러오
는 목사 때문이다.

“누나에게 교회 가자고 하고, 토정비결이나 점 같은 거 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컷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누나가 점 보러 가는 곳에서 매년 같은 목사님을 만난다면서 ‘목사도 자신의 미래가 궁금해서 점집을 찾는데 무슨 교회냐’며 쏘아부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D자매(33세, 비신자)는 기독교나 미신이 똑 같다고 생각한다. 그녀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데에는 고모의 영향이 크다.

“고모가 권사인데 점 보러 자주 다니세요. 이삿날도 정하러 가고, 자녀들이 결혼할 때 사주팔자랑 궁합도 보러 갔고요. 그렇다고 고모

가 교회를 잘 안 가는 것은 아니예요. 교회 행사 때마다 두 팔 걷어 부치고 나서서 봉사하세요. 고모를 보면 기독교나 미신이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해소 방법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건강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 의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전을 찾는 경우가 많다.

사실 대한민국은 점술공화국이라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니다. 서울만 해도 미아리, 전호동 일대, 유명 대학가, 압구정 로데오거리, 강남역 등 변화가에 가면 각종 철학관, 점집, 사주카페, 타로카드카페 등이 성행하고 있다.

무당과 역술인이 100만 명이나 된다는 통계도 있다. 대한경신연합회(무당 단체)와 한국역술인협회(역술인 단체) 현재 회원은 각각 30만 명이라고 한다. 2006년에는 대한경신연합회 가입 무당 14만 명, 역술인연합회 회원 20만 명이었는데 10년 새 1.5~2.1배나 늘었다. 비회원까지 추산하면 무당과 역술인 수가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개신교 성직자 수 14만 483명, 불교 4만 6,905명, 천주교 1만 5,918명(문화체육관광부, 2011년)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다.

요즘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도 손쉽게 운세를 볼 수 있다. D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운세’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띠와 별자리, 생년월일로 그날의 운세뿐만 아니라 주, 달, 신년 운세까지 바로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이트가 수백 군데나 된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성경에도 신통력 있는 점쟁이들이 나온다. 모세와 대결했던 애굽의 요술사들(출 7:11),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원인을 제공했던 귀신들린 여중(행 16:16~24), 제자들조차 제대로 모르던 예수님의 정체를 대변에 알아본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막 1:23~26) 등이 점쟁이들이다.

성경은 점보는 행위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금하고 있다. 왜냐하면 십계명의 제일 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출 22:18~20).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 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신 18:9-12).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
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
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레 20:27).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수 24:14).

“너희는 무엇이든지 꺾어 먹지 말며 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너희는 신성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레 19:26-31).

사도 바울은 술수를 육체의 정욕에 속한 일로 규정하고 이를 경계하도록 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같이 경계 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갈 5:19-21).

흔히들 “아이구, 내 팔자야”, “다 팔자 소관 이야”라는 말을 자주 한다. 또한 점보는 것에 대해 “재미로 보는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냥 한 번 보는 건데 뭐 어때?”, “점보는 걸 정죄하는 그 태도가 더 나빠”라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미신은 가증하고, 멸하여질 것이고, 돌로 쳐 죽일 일이며, 육체의 정욕이므로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우상을

추종해서 스스로를 더럽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경고했다. 인간의 길흉화복과 운명은 사주팔자, 부적, 미신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

고 그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번성할 것이요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신 30:15-16).

거짓예언, 미신에 현혹되지 말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진정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미신이 아니라 바로 진리이기 때문이다(요 8:32).

미신 문화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

솔로몬처럼 미혹된 믿음의 본이 되지 말아야



노치형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미신(迷信)이란 말은 ‘비과학적이고 종교적으로 망령되었다고 판단되는 신앙 또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으로 점복, 굿, 금기 따위’ 혹은 ‘과학적·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음’이라고 설명된다. 한자어로는 ‘미혹할 미’(迷)자에 ‘믿을 신’(信)자를 쓴다. 믿음은 믿음인데 미혹된 믿음, 미혹하는 믿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과연 어떤 것이 미혹된 믿음, 미혹하는 믿음일까?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성경에 기록된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싶다.

솔로몬의 미혹됨과 그 영향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고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광야의 성막이 아닌 기브온의 큰 산당(히브리어 ‘바모트’, 높은 곳들)에서 이루어졌다(왕상 3:2-4).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아주셨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셨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마음에 들어 하시며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왕상 3:5-12).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굳건한 사랑의 믿음이었다. 그러나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보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출신의 이방 여인들을 더 사랑했다. 700명의 후궁들과 300명의 첩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지게 했고,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히브리어 ‘바마’, 높은 곳)을 짓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

했다(왕상 11:1-8).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방 여인을 향한 사랑으로 변질되어 미혹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버렸다. 유감스럽게도 미신을 따르는 삶의 본이 되고야 말았다.

솔로몬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모든 왕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여러 산당들에서는 우상들을 향한 제사를 행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이중적 예배생활에 익숙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는 백성들이 이중적 예배생활을 해도 괜찮다는 악습의 본을 그들의 왕을 통해 찾았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 합리화하며 미혹된 믿음을 지니게 되었을 것이며,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미신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했을 것이다.

삶 속 깊숙이 침투한 미신들

솔로몬 시대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예수를 자신의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또 어떨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한 상태로 잘 지켜가고 있을까? 2018년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매우 진지하게 질문해 본다.

솔로몬 이후 사람들에게 이방신을 위한 산당들이 있었다면, 오늘날 대도시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미신이 공존하고 있다. 토정비결, 사주명리학, 손금, 관상, 타로, 운명철학, 작명, 풍수, 점, 오늘의 운세, 굿, 꿈 해몽, 궁합, 부적, 주역, 시대정신, 초월명상 등 그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미신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미신을 전파하는 매개자인 무속인이나 역술인이라는 존재를 통해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 무속인과 역술인들이 영화나 드라마, 만화, TV, 라디오의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등에 출연해서 웃음과 두려움을 동시에 전하면서 사람들의 뇌와 마음을 자극하고 있다.

미신들은 서로 잘 연결된다. IMF 직후, 오프라인에서는 점집들이 살아남기 위해 ‘점집 백화점’을 만들었다. 한 건물에 총별로 다양한 미신을 만날 수 있는 점집들을 모은 것인데 큰 성공을 거뒀다.

온라인에서는 그 어떤 종교보다 점집이 가장 먼저 활발한 네트워크를 이루었다. 그들은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모아 놓은 ‘전국 포털 사이트’를 운영했다. 무속인과 역술인 개개인을 홍보해주고, 상호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또한 성공적이었다.

문화생활과도 쉽게 연결되어 있다. 극장이나 영화관, 노래방, 주점, 기타 유흥업소 등의 사업과 콜라베이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교육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초등학교 공작활동에 세계 문화 및 종교를 교육한다는 취지로 아메리카 원주민이 만드는 드림캐처(dreamcatcher) 만들기가 포함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 드림캐처(dreamcatcher)는 버드나무로 만들어진 원형의 틀 안에 깃털과 구슬 등으로 거미집 모양의 성긴 그물을 만드는 장식품이다. 악몽을 잡아주어 악운을 피하고 좋은 꿈을 꾸게 해준다는 전설을 갖고 있다. 영적인 도구가 한갓 장식품을 만드는 것처럼 여겨져 우리들의 삶 속에 너무 당연하게 파고 들어오고 있다.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

미신들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가올 수 있는 것일까? 사람들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풀어준다고 여겨지기 때문일까? 다가올 상황에 대해 여유 있게 기다리지 못하는 조금증이 불러온 과정일까? 아니면 미리 모든 것을 알게 되면 앞으로의 삶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게으른 믿음 때문일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미신의 문제는 ‘나를 사랑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내가 잘되는 것’과 연결될 것이

다. 내가 잘되는 것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하지만 이것에만 집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 문제가 된다.

내가 잘되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호기심과 궁금증이 생겨나고, 그 결과를 빨리 얻기 위해 마음이 조급하게 되며 나아가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솔로몬이 그랬다. 평화라는 대의명분으로 이방 여인들을 맞이했지만 그녀들을 사랑하게 되다보니 그들이 사랑하고 있는 다른 신들을 접하게 되었고, 그들의 제사 방식을 체험하게 되었다. 일천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는 말씀을 다른 신들, 곧 우상들로부터도 듣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더 믿게 되었고, 결국 미혹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버렸다. 너무나도 슬픈 솔로몬의 종말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더욱 많아지고, 구체적이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불확실한 2018년에는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에 신년운세와 오늘의 운세를 재미삼아 보고, 더 좋은 날 이사하기 위해 손 없는 날을 따져보거나, 이혼도 많고, 질병과 사고사로 인한 사별도 많아진 이 시기에 조금 더 확실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 서로의 결혼합과 속궁합도 볼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없기를 기도한다.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서점에 들러 사주 풀이 책자를 통해서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나의 미래가 잘 되는 것’에 대한 무수히 많은 미신의 외침들 속에서 우리는 솔로몬처럼 미혹된 믿음의 본으로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정신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훈련을 날마다 실천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인 나와와 상호침투의 놀라운 역사가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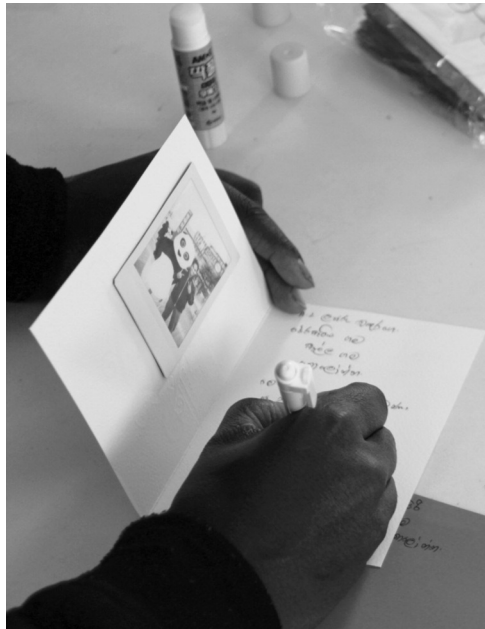
장애인과 이주민 그리고 전도

양재 사랑부, 평택역 이주민 전도행사

장애인과 이주민이 하나 되어 세상에 단 하나 밖에 없는 축제를 열었다. 지난 12월 10일 양재 사랑부와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성도들이 평택역 광장에서 실시한 전도행사가 바로 그것이다. 섬기는 사람이나 섬김을 받는 사람 모두의 반응이 놀랍고 뜨거웠다. 모두 함께 웃고, 울면서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양재 사랑부가 이주민들에게 사진을 찍어주고, 크리스마스 편지를 고향으로 보내주는 전도행사를 개최했다.



이주민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이주민들에게 평택M센터를 소개하는 것 만으로도 전도가 되었다. 스리랑카에서 온 루이 형제와 캄보디아에서 온 김홍 형제는 기다렸다는 듯이 평택M센터에 가겠다고 약속했다.

“타국에서 혼자 일하고 지내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평택M센터가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 줄 것 같아요.”

자녀에게는 자신감 부모에게는 희망과 용기

양재 사랑부 박서영 자매(23세)가 용기를 냈다. 영어로 이주민 커플에게 먼저 다가가 전도를 했다. 그녀에게는 아주 조금의 주저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아주 담대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양재 사랑부는 10년 넘게 전도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07년 제주도 청암재활원, 2008년 안양 난치병센터, 2010년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2015년과 2016년 태안 신두리 해수욕장, 2016년 안산 이주민 전도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평택역 이주민 전도행사를 준비하면서도 무수히 많은 연습을 했다. 거듭된 연습과 전도 생활화가 사랑부 지체들에게는 전도에 대한 자신감을, 부모들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이세은 형제의 어머니 성하영 성도는 전도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제 아이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줄 아세요?”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저 들 밖에~ 한 밤 중에~♪”

은은한 율림과 여운이 울려 퍼지는 밤벨 소리가 평택역 광장을 물들였다. 지나가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부족함이 없는 연주였다. 밤벨 연주를 유심히 바라보던 중국인 이오의 형제는 그만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다. 그 렬만한 이유가 있었다.

“밤벨 연주가 꼭 저를 응원하는 소리 같더라고요.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어요.”

경기도 평택시에는 이주민 2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전도의 황금어장이다.

아주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

양재 사랑부는 이주민들에게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다. 이주민들이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마음을 가득 담아 편지를 쓰면 집으로 보내주는 이벤트가 바로 그것이다. 크리스마스트리와 함께 찍은 사진도 붙였다. 이주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준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온 이주민들이 평택역 광장을 가득 메웠다. 이주민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있었다.

베트남에서 온 푸엔 형제와 네팔에서 온 호리카 형제는 아내에게, 미얀마에서 온 서통과 띠아나 형제는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다. 캄보디아에서 온 사론 형제는 엄마에게 편지를 보냈다.

“엄마 나는 잘 지내요. 걱정하지 말아요.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몽골에서 온 설몽, 간톨라 부부는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주고, 가족들에게 편지까지 보내줘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교회가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곳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사역칼럼



이루주 전도사
(양재 사랑부 담당)

양재 사랑부가 생긴 지 벌써 12년이다. 양재 사랑부의 특별한 점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전도를 했다는 점이다. 초창기에는 사랑부 지체의 친구들을, 그 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장애인 자

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사랑부 캠프를 가는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안산, 올해는 평택에서 이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무슨 전도를 하고, 남을 도울 수 있겠냐는 시선과 질문이 많았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부 지체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 믿음으로 지난 12월 10일 평택역에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전도행사를 개최했다. 사랑부 지체들, 부모님, 선생님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했기에 할 수 있었다.

전도하러 갈 지역을 선정할 때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했다. 사랑부 지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동거리와 동선을 확인하고 또 했다. 노방전도를 나갈 수 있는 거리도 미리 확인해서 전도할 지역을 선정했다.

때마침 평택M센터가 개척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다. 하나님께서 올해 사랑부에 맡겨 주신 땅은 평택이었다. 평택M센터 담당 이광수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논의하며 전도행사를 준비했다. 평택역 앞 광장을 빌렸고, 행사 날짜도 12월 10일로 정했다.

12월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달이기 때문에 복

축복의 통로

음 전하기가 더욱 좋았다. 양재 사랑부 지체들은 밤벨과 클라리넷 연주, 찬양과 율동을 준비해서 선보였고,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청년들도 함께 찬양했다. 이날 전도행사에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진을 찍어주고, 그들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쓴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주는 이벤트를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00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이곳에서 사진을 찍어드려요. 사진과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시면 저희가 고향집으로 부쳐드려요.”

사랑부 지체들과 선생님들이 전도행사를 안내하면, 사랑부 부모님들이 사진을 찍어주고, 몽골어예배 청년들은 편지쓰기를 도와줬다. 편지를 다 쓴 이주민들에게는 성경책과 선물을 나눠주면서 평택M센터를 소개했다. 평택M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어학교와 상담 등을 알려주면서 이주민들과 평택M센터가 연

결될 수 있도록 도왔다.

날씨가 꽤 추울까 걱정했었다. 눈과 비가 내리긴 했지만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비를 멈춰주셨고 날씨도 그리 춥지 않았다. 그 덕분에 사랑부 지체들이 안전하게 전도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시간이었다. 분명 하나님께서 사랑부 지체들을 한국에 온 이주민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확신한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할 수 있었다.

양재 사랑부는 앞으로도 이웃, 가족, 친구, 이주민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사랑부 지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승리하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도를 부탁한다.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대청 크리스마스 블레싱 ... 포항 지역교회를 끌어안다

포항 흥해교회 김영달 목사가 올었다. 축도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목이 뻐다. 얼마나 고맙고 감동을 받았으면 흥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올었다. 아픔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해준 온누리교회 청년들도 올었다. 해준 것도 없는데 크게 감동 받고 고마워하는 그 마음에 눈물이 쏟아졌다. 지난 23일과 24일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 소속 청년 260명이 포항 지진피해 복구현장에서 보낸 아주 특별한 크리스마스이야기다.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가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 교회 14곳에서 복구를 도왔다. 그 중 포항 흥해교회를 방문한 SNS공동체와 동행했다. 흥해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사용제한’이라고 적힌 노란색 종이가 보였다. 이번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흥해교회는 아직까지도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지진 당시 얼마나 진동이 심했는지를 지금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벽에 금이 심하게 갔고 틈도 벌어져 있었다. 십자가도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다. 교회 내부는 말할 것도 없었다. 천장이 떨어져 나갔고, 유아실과 자모실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아직도 치우지 못한 잔해들이 가득했다. 부교역자 사택은 이미 철거작업이 한창이었다.

흥해교회는 포항 지진 진원지로부터 700m 정도 떨어져 있다. 흥해교회 담임목사 김영달 목사는 지진이 났을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전쟁터 같았어요. 서재에 있던 책들이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지진 트라우마도 심각했다. 평소 겁이 없었고 자신했던 김영달 목사가 지금은 작은 소리만 들려도 몸이 먼저 반응한다고 했다. 지진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이들은 김영달 목사뿐만 아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뛰기만 해도 성도들의 신경이 곤두설 정도였다. 아이들에게도 충격이 대단했다. 흥해교회 조은애 전도사가 아이들에게 집에 피해가 없는지를 묻자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다.

“집은 괜찮은데 제 마음이 안 괜찮아요.”

위로와 눈물 그리고 용기

SNS공동체 소속 청년들은 형제와 자매로 나누어 복구를 도왔다. 형제들은 부서진 건물

잔해를 치웠고, 자매들은 피해가 적었던 교육 선교관을 쓸고 닦았다. 임시 본당으로 만들어 놓은 식당에 성탄트리 장식도 했다. SNS공동체의 섬김은 새벽까지 이어졌다. 피곤할 법도 한데 누구 하나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

크리스마스이브에는 성탄축하 발표회를 열었다. SNS공동체 청년들이 선보인 성극과 합창이 흥해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했다.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자 눈물이 뻗었다. 흥해교회 김영달 목사와 성도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발표회를 마치고 축도를 하는 김영달 목사가 북받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청년들의 특수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아, 걱정 말아라 내가 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이겨낼 겁니다. 온누리교회 청년들의 헌신과 섬김 덕분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말 100점 만점에 1000점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지진

흥해교회는 지은 지 36년 된 교회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교회로 소문이 났다. 그런 흥해교회가 지금은 지역사회를 전혀 돌보지 못하고 있다. 흥해교회가 입은 지진 피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지원도 거의 받지 못했다. 사찰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서 지원금이 나오지만 교회는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로 저금리 대출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형교회는 스스로 복구하면 되고, 미자립교회는 총회에서 도움



포항 흥해교회 지진피해현장(위). 청년들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있다(아래).

을 받으니까 복구가 가능한데 흥해교회 같은 중형교회는 그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흥해교회 십자가가 위태롭게 세워져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교회 철거비용을 겨우 지원받았다. 그러나 교회 본당 건축비 마련이 쉽지 않다.

포항 지진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지난 25

일에도 3.5 이상 여진이 또 다시 발생했다. 벌써 여진만 75번째다. 포항 지역 교회들과 성도, 주민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이 절실하다.

후원: 농협 352-0569-4747-33 김영달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간증



백승범 형제
(SNS공동체)

나는 이번 크리스마스 블레싱 ‘포항 한마음교회팀’ 팀장을 맡았다. 크리스마스 블레싱 장소가 급하게 결정되다 보니 준비할 기간이 매우 짧았다. 그래도 팀의 리더십이 꾸려지자마자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을 위해 중보기도를 시작했다.

팀원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 하나는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를 생

각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 안에 임하는 평안이었다. 우리가 포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지만 두 가지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한마음교회에 가기 전에 흥해교회에 먼저 모였다. 흥해교회는 포항 지진의 진원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 피해가 심각했다. 본당을 철거해야 할 정도였다. 처참하게 무너진 예배당을 보고나서야 지진피해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다. 지진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다. 지금도 이어지는 여진 속에서 불안해하는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다.

한마음교회는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위치해 있다. 한창 발전하고 있는 신도시라고 했다. 다행히 한마음교회는 심각한 지진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 오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한다. 또한 예배당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빚을 지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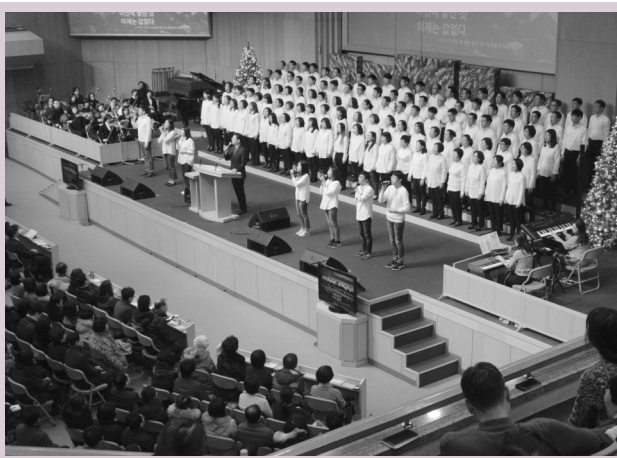
우리는 한마음교회 아이들과 교제하고, 성극 특수를 선보였다. 크리스마스 선물도 전달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미는 손은 극히 작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면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우리팀이 간구했던 것처럼 세상이 이해할 수 없

는 하나님의 평안이 한마음교회에 가득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어느 때보다 기쁜 성탄예배를 드렸다.

우리팀은 한마음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흥해교회에서 진행된 성탄발표회에 참여했다. SNS공동체 청년들이 특수를 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흥해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팀도 흥해교회 성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았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 하나님이 포항 지역에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12월 23일 Sat 토요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고후 5:7~10

이재훈 목사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주어진 그리스도 임재의 절정은 바로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 이후의 삶을 ‘after life’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을 ‘before life’ 즉, 진정한 삶의 사전(事前)을 살고 있다고 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은 서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통해 하신 약속들의 공통점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유한한 삶이었다면 영원한 약속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고 싶다(8절)고 말했습니다. 이는 삶을 비관하여 죽음을 선택하고자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은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 실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

다. 은 천국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갈등은 영원에 대한 갈등입니다. 영원에 대한 갈망은 영원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영원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마 14:2-3).

영원한 천국은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이 땅에 물리적, 실제적으로 존재하듯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도 분명히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천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집에서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

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대’(10절)라는 말씀이 우리를 긴장하게 합니다. 이 심판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서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관점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며(7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9절). 우리가 이 땅에서 몇 세를 살건, 어떤 고난과 죽음이 와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은 본론이 아니라 서론입니다. 우리는 본론을 준비하는 사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12월 26일 Tue 화요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후 5:16~17

박종길 목사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고후 5:16).

육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란 우리의 몸이라기보다는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세상은 우

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자격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왜 죽습니까? 육체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육체도 죽게 하고, 우리의 영혼도 죽게 합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는 자기가 감당해야 합니다(겔 18:20). 죄는 죽음으로만 그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

서 무서운 것입니다. 제 아버지는 아들이 목사이기 때문에 자신이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셨습니

다. 그건 세상의 방법이고 관점입니다. 아닙니다. 성경(겔 18:20)은 각 사람이 지은 죄값을 치르게 되어있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청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방법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고후 5:17).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새것이 된다는 것은 너무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조금씩 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내 안에 있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천국에 가지만 그게 아니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롬 10:10).

예수님을 믿으면, 그 입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27일 Wed 수요일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롬 8:1~4

박종길 목사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그대로인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 구절인 로마서 7장 25절에서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는데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싸우고 애쓰고 하나

님 부끄럽지 않은 믿음을 가져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십자가의 은혜가 와 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정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

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도 육신의 법을 따르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해방시켰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벗어버리게 만드는 놀라운 빛이 비취었습니다. 그 빛이 우리 안의 어둠을 쫓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도 육신은 죄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예수님을 보고 도망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또 하나는 예수입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는 거룩하

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선물로 받은 인간들이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성령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완전해지지는 않지만 노력해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계속 성령을 따라가면 나아집니다. 존경하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고, 성도는 성령을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12월 28일 *Thu* 목요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롬 8:5~11

이재훈 목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와 교통하지 않고,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아래가 아닌 해방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 됨을 이루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고,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를 입어야 가능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주어진 약속들을 기억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이것을 지적인 차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체험하지 못합니다. 보통 이해한 후에 체험의 차원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체험이

먼저고 깨닫는 것이 나중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깨닫기 위해서 책을 수십 권 읽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순간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특별하게 성숙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자이기에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성장함에 따라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죄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 생명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령님이 다시 살리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를 통해 새 생명이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직 생명만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아담 안에 태어난 우리의 몸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죽을 몸이라고도 하고, 죽은 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새 생명이 거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새 몸을 입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임재하심과 자유를 날마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면 의식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우리의 결심과 노력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협력하고 성령님을 따라 행할수록 더욱 깊이 깨닫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헌신과 순종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게 됩니다.

12월 29일 *Fri* 금요일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열매가 맺어집니다

요한복음 15:5~8

이재훈 목사

참된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보다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5절)는 말씀을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열매 맺는다’는 말은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열매는 ‘맺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과 환경만 된다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인데 우리는 이것을 율법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신앙생활이 마치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농부, 우리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표현한 사실을 깊이 묵상해야 합

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는 것이고, 그 나무를 돌보는 이는 농부입니다. 즉, 열매 맺음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농부에게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열매가 맺어지도록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손질하신다(2절)’는 말씀은 ‘가지치기’라는 뜻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관촬아 보이는 가지도 쳐냄으로써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고통스럽게 보이지만 진정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불필요한 가지를 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천국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치기 하실 때는 말씀으로 행하십니다. 그 포도나무에서 가지로 흐르는 생명의 수액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9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한 사랑을 먼저 부어주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밀려왔습니다. 포도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수액과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가지의 정체성은 나무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만큼 긴밀한 연합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존재의 근원이자 창조주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안에’라는 말은 공간적 의미

가 아니라 살아있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 연합이 가능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옛사람으로는 연합이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거하는 이들을 찾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는 말씀은 율법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 안에 머물기만 하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내 안의 불필요한 가지치심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온전히 주님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또 찾아 가겠습니다”

대학청년부 ‘사랑앓나눔’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 소속 청년들이 ‘사랑앓나눔’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전했다. 지난 12월 2일부터 23일까지 이어진 대학청년부 ‘사랑앓나눔’ 사역에서는 서울 11개 지역, 830가구를 방문해서 쌀, 반찬, 담요 등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고영순 어르신은 눈물 어린 눈으로 청년들을 바라보며 “나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느냐”며 감격했고, 박인수 어르신은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인사했다.

김인석 어르신은 “청년들 덕분에 옮겨올은 따뜻하게 날 수 있겠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방성필 형제(길공동체)는 “계속 이웃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 김영선, 이소정 기자



청년들이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

“가장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

대청, 다문화가정 위한 ‘윈터캠프’ 개최

대학청년부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안산M센터와 인천동산교회 다문화가정을 위한 ‘윈터캠프’를 개최했다.

대학청년부는 윈터캠프에 참가한 40가정과 함께 롯데월드 어드벤처, 스카이다워 전망대 관람 등을 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편지를 써주는 시간과 세족식도 이어졌다. 윈터캠프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가장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면서 “내년에도 꼭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지은 교사(인천동산교회)는 “스태프들의 헌신과 사랑에 감격했다”고 했고, 김영아 자매(W공동체)는 “다문화가정에 대해 새롭게 알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설날연합집회 ‘RUSTA 2018’ 봉사자 모집

2월 15~17일 Acts29비전빌리지

러시아 언어권 이주민을 위한 설날연합집회 ‘RUSTA 2018’ 봉사자를 모집한다. 러시아권 어린이 돌봄팀, 방송팀, 의료팀 등 20명이 필요하다.

RUSTA(Russian Speaking nations To All nations)는 명절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러시아 언어권 이주민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행사다. 이번 집회는 ‘예배(HUG, with God)’를 주제로 2018년 2월 15일(목)부터 17일(토)까지 Acts29비전빌리지에서 진행된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인, 러시아 연방출신의 유학생

및 직장인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러스타 집회에서는 한알렉산드라 목사 ‘아브라함의 예배’, 아르좁 목사 ‘아곱의 예배’, 이펠릭스 목사 ‘에스더의 예배’, 올렉치카노프 목사 ‘베드로의 예배’, 남에드와르 목사 ‘사도요한의 예배’를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RUSTA 2018’은 온누리M미션, 주한 CIS목회자연협회, Landmarker Ministry, Global Core Ministry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다.

문의: 010-2959-0908

/ 이소정 기자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고”

사역장로회 송년모임 및 총회 개최

사역장로회가 2017년도 송년모임 및 총회를 개최했다. 지난 12월 26일 CS플라자 6층에서 이재훈 담임 목사, 사역장로 33명이 모여 사역장로회가 나아갈 길을 논의했다. 사역장로 송년모임 및 총회는 오찬회, 예배, 총회(업무보고 및 친교)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목사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유언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라’였다”면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처럼 후배 장

로들에게 사랑과 조언을 해주고 지원하는 사역장로회가 되길 축복한다”고 권면했다.

주수일 장로(사역장로회장)는 “남은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역장로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고, 백승웅 장로(사역장로회 총무)는 “사역장로들이 젊은이 못지않은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님들께 도움을 주고 싶다”고 소망했다. 정강무 장로(분당B공동체)는 “사역장로들 모임이 더욱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1월 9일부터 Basic QT 개강

2018년 1월 9일부터 ‘Basic QT’ 과정이 개강한다. 1월 30일까지 4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CGN 홍보관에서 진행된다. 큐티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나 큐티를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문의: 02-3215-3637

서빙고 나눔장터 봉사자 및 헌물 모집

사회선교부 소속 서빙고 나눔장터에서 봉사자 및 헌물을 모집하고 있다. 나눔장터 봉사자는 의류 정리 및 판매를 담당하게 된다. 매주 주일 오전 8시 30분~10시 30분, 오후 1시 30분~4시까지 섬겨줄 봉사자가 필요하다.

헌물도 모집한다. 의류, 식기, 책 등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 1층 나눔장터에 가져다주면 된다.

문의: 010-8752-2222

양지, 오늘 사역박람회

양지 온누리교회가 오늘(31일) 사역박람회를 한다. 로비에 양지 온누리교회 모든 사역팀이 총 출동한다. 이주민사역팀, 전도사역팀 등 다양한 사역팀에 대한 설명도 하고,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문의: 031-331-8171

온누리남성선교합창단 단원 모집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20분 연습

온누리남성선교합창단에서 단원을 모집한다.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인 남자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오디션은 찬송가 1곡을 자유롭게 준비해 오면 된다.

온누리남성선교합창단은 2002년

창립됐다.

군부대, 교도소, 미자립교회 등지에서 찬양으로 선교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연습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2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하고 있다.

문의: 010-8695-8341

NGO 더멋진세상, 세네갈에 중학교 건축

한국국제협력단 선정 ‘올해의 우수 단체’

NGO 더멋진세상이 세네갈 본나바 마을에 케르발라 중학교를 건축했다. 중학교가 없어서 학업을 포기했던 200여 명의 학생들이 드디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지난 14일 케르발라 중학교 오픈예배에는 김광동 장로(NGO 더멋진세상 CEO), 김효은 대사(주 세네갈), 주

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광동 장로는 “세네갈 본나바 마을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세네갈을 이끌어갈 훌륭한 리더로 자라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한편, NGO 더멋진세상은 지난 28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시상식에서 올해 우수 단체로 선정됐다.

2017 연말정산 안내(기부금영수증)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출력 또는 우편발송 요청 가능합니다. 직접발급: 각 캠퍼스 목회지원실 (화~금, 주일)

*CGNTV, NGO 더멋진세상, 월 드비전, 컴패션은 별도 발급합니다. (국세청일괄 조회 1월 15일).

CGNTV

www.cgntv.net(1월 8일부터)
국세청: www.hometax.go.kr
(1월 15일부터)
문의: 02-796-2243

NGO 더멋진세상

www.abetterworld.odkr
(1월 5일부터)
국세청: www.hometax.go.kr
(1월 5일부터)
문의: 02-2271-2248

40대 맞춤형도전회 '두 번째 스무 살' 세례간증



/ 김형준 성도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셨지만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예수님은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내 곁에 계셨는데 정작 나는 그분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나는 지난 48년 동안 세상의 온갖 혼탁함에 빠져 있었다.

나는 20여 년 동안 공직자로 일해 왔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명예와 재물, 성공이라는 우상에 빠져 헛된 것들을 좇으며 살았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이룬 성취들이 모두 내게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만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눈물어린 기도를 보지 못했다. 세상의 가치에 취해 있었고, 성공에 열광하는 언론과 주변의 목소리에 젖어 있었다.

최근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은 내게 수많은 은혜의 빛을 비취 주셨는데도 나는 눈을 감고 헤매고 있었다. 2017년 초 죽을 것만 같았던 광야의 시간 속에서 혼자 되었을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주님이 한줄기 빛처럼 내게 다가오셨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 세상 끝 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한 줄기 빛처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강과 치유를 경험했다. 그날 이후 나의 삶이 달라졌다. 모든 절망과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었고, 사랑으로 가정이 하나 되었다. 그 과정 가운데 아내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번 세례식에서 나와 함께 세례를 받게 되었다.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요셉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놓지 않고 믿음과 순종으로 희망을 열었다. 요셉의 믿음과 순종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동안 온갖 욕심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왔던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한다.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 영생의 구원만이 유일한 진리임을 고백한다.

내가 광야에 홀로 버려졌을 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준 정현주 집사 부부께 감사를 드린다. 무엇보다 맞춤형도전회 '두 번째 스무 살'에서 새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신 이재훈 담임목사님, 새신자 예배에서 말씀으로 기도와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 주신 정재원 목사님께 감사드린다.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직 복음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Why Mission 68기 수료 간증



/ 신진철 집사(성북공동체)

참으로 귀한 배움과 깨달음

나는 중국에서 약 10년 동안 생활하다 2014년 귀국했다.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참여하고 싶었던 과정이 'Why Mission'이었다. 그런데 귀국 후 처리하고 정리해야 할 일이 많아서 바로 수강하지 못했다. 한국에 온지 꼭 3년 만에 Why Mission과정을 듣게 되었다.

Why Mission과정은 그동안 OBC에서 수강했던 여러 과정과 사뭇 달랐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동안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다.

먼저 성경 내용이 하나님의 선교 역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셨고, 예배가 사라진 곳에 예배를 회복시키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의 내용이 결국 성경이었다. 나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외웠고, 예배에서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이번 Why Mission을 통해 처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게 되었다.

또한 선교는 나의 의지나 역량, 경제적 조건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만 진행된다는 것을 배웠다. 선교에 참여하는 자는 헌신하는 마음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

옵소서'와 같이 겸손하게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오로지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되기에 나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나의 잘남과 성과를 내세울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양화된 선교사 묘역 방문을 통해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향해야 할 사명이 선교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종족들과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기도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처럼 한 영혼을 바꾸기 위해 열방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온누리교회 기도모임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았다.

지금 내가 담당하고 있는 여러 일들을 돌이켜 본다. 나의 역량과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선교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선교지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책임을 감당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려 한다. 또한 아웃리치를 통해 선교사님을 찾아뵙고, 현지에 도움이 되는 작은 역할이라도 담당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코자마(KoJaMA) 집회 간증



/ 김수경 자매(일본어예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나는 지난 3일, 코자마(KoJaMA) 집회에 다녀왔다. 코자마(KoJaMA) 집회는 일본어예배를 드리고 있는 서울 지역 교회의 성도들이 연합해서 드리는 예배다. 온누리교회를 비롯해 할렐루야교회, 남서울은혜교회, 오룬교회, 사랑의교회 등 11개 교회 일본어예배부가 참석했다.

온누리교회 일본어예배는 이번 연합집회를 위해서 찬양연습을 했다. 나도 그 연습에 동참했다. 그런데 집회 당일 행사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짝 사라졌다. 다른 사역과 봉사를 하느라 너무 피곤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코자마 집회에 참석하고 싶어 하는 순원이 있어서 순장의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참석했다. 우리 일행은 승합차를 타고 함께 출발했다.

집회장소로 가는데 그 순원이 조그만 소리로 배가 고프다고 했다. 그 소리를 옆에 앉은 사모님이 듣고 가장 안에서 군밤을 꺼내 주셨다. 그 군밤을 시작으로 승합차 여기저기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주전부리들을 내놓았다.

나는 순원에게 선물 받은 빵 한 개, 한 형제는 건빵 1봉지, 군고구마와 견과류를 내놓는 지체도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오병이 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집회장소인 할렐루야교회에 도착했다. 할렐루야교회 성도님들이 우리를 반갑고 상냥하게 맞아주셨다. 처음 보는 사이지만 낯선 마음은 온데간데없고 평안했다. 육체의 피로도 느껴지지 않았다.

코자마 집회에 참여한 교회마다 다양한 찬양과 워십댄스를 준비했다. 어린이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또 장애인 성도님들도 함께 어우러져서 진정한 연합예배를 드렸다. 실수도 하고 불협화음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더 재미있고 사랑스러워 보였다.

서로 다른 교회, 제각각 섞인 한국인과 일본인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인 모습이 마치 각지에 흩어져 살다가 오랜만에 모여 성탄절예배를 함께 드렸던 어릴 적 기억 속 가족모임 같았다. 정겨운 가족애를 느낄 수 있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가족이다.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온누리 창조과학스쿨 수료 간증



/ 손선영 성도(S브릿지공동체)

창조주 하나님

하반기 온누리 창조과학스쿨 과정을 마치면서 5주 동안의 시간들을 돌이켜본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창조과학스쿨 첫째 날이었다. 이해영 목사님이 창조신앙의 의미에 대해 전해주셨는데 지금도 잊히지 않는 말이 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함께’이며 활동방식은 ‘창조’이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모습 또한 타인과 더불어 존재해야 하며 창조적인 활동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동이 밀려왔다. 온누리 창조과학스쿨에 참여해야 하는 의미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이 이어졌다. 과학교사인 집사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삶에 대해 나누었다. 나 또한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기에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에 감사했다.

온누리 창조과학스쿨 마지막 시간에는 지구와 우주를 조화롭고 질서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창조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를 부

정하는 진화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전쟁으로 느껴졌다.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죄악이 관영했던 노아시대처럼 보였다.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고, 다시 오실 주님과 심판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5주 동안 진행된 강의와 말씀은 현재 우리가 배우는 과학과 성경말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마음속으로 되짚어보는 귀한 시간이었다.

온누리 창조과학스쿨을 수강하면서 좋았던 점이 또 있다. 학교 기독교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창조론에 대해 나누게 된 것이다. 이러한 나눔을 통해 학교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목사님과 다른 선생님들, 진화론에 의문을 가졌던 학생들과 뜻 깊은 시간을 갖게 되었다.

창조과학스쿨의 많은 프로그램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스태프들에게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창조과학회와 온누리 창조과학선교팀을 축복하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장로칼럼

물 떠온 하인들의 기쁨



김만순 장로
(이촌공동체)

“이번 학기는 종강 예배 대신 기차여행이 어떨신가요?”

올해 8월 마지막 주, 이촌공동체 총무 하주헌 집사가 통화 중에 한 말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

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대표 장로로서 그에 따르는 조건들이 부담이 되었다. 비싼 고정비용 때문에 최소 300명 이상을 채워야 했고, 가능한 날짜가 초겨울인 12월 9일뿐이었다. 예약금을 선납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었다.

나는 급하게 이촌공동체 담당 김홍주 목사님과 상의한 다음 계약금을 냈다. 하반기 순 개강 예배 때는 드라마 겨울연가에서 이름을 딴 ‘이촌연가’를 선포했다. 순풍에 돛을 단 듯했고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올랐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만큼 많은 인원이 참가할 수 있는지,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는지 등이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이 분명했기에 합심기도를 시작했다.

“주님! 이 계획이 우리의 생각이라면 지금이라도 막아 주세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씩 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오묘했다. 처음에는 잊힌 순식구와 가족친지 초청으로 시작했는데 전도본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공동체 맞춤형 전도집회가 되었다. 목표가 바뀌면서 활력을 되찾았다. 온누리M미션 서빙고 러시아어예배 성도들도 초청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아우르도록 목표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주셨다. 우리는 띠 금식표를 따라 순별로 돌아가며 금식기도를 했다. 순장모임과 순모임, 매주 토요일 아침에도 모여 행사와 전도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인원 300명이 채워질지 염려했는데 행사당일 321명(순식구 180명, 친지 73명, 러시아어예배 38명, 전도대상자 30명)이 기

차에 탑승했다. 걱정했던 재원도 성도들의 자원으로 훌쩍하게 마련되었다. 춥던 날씨도 포근해졌다. 행사 다음날 아침 소복이 쌓인 눈과 차가운 날씨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세심한 손길에 감사를 드렸다.

왕복 6시간 동안 6개 객실에서는 쉴 새 없이 유쾌하고 신나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재훈 담임목사님의 축하 영상메시지, 이촌공동체 소속 이무송·노사연 부부의 축하 영상, 장로님들의 간식 배달과 아이스 브레이킹, 바이올린 연주와 4인조 남성중창단, 여성 국악 장구팀, 게임, 퀴즈, 각종 사연과 음악을 함께 듣는 ‘보이는 라디오시대’ 등 진행하는 프로그램마다 은혜와 기쁨이 넘쳤다. 가족친지와 순식구들이 간식을 나누면서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운 것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특별히 전도대상자를 태운 객실에서는 ‘당신의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를 주제로 김홍주 목사님의 열정적인 메시지가 선포되었다. 김홍주 목사님은 우리가 타고 가는 열차의 종착역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열차도 반드시 종착역에 이를 텐데 그때 돌아갈 집이 준비되었는지를 물으셨다. 이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선포했다. 목사님이 틈틈이 전도대상자들을 한명씩 만나 복음을 전하는 모습도 감동이었다.

이번 여행은 아이들에게도 즐거운 시간이었다. 기차 안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상어송’이 나오자 아이들이 일제히 모여 신나게 춤을 추었다. 일일이 기록할 순 없지만 공동체 성도들 안에 숨어있던 은사들이 아름답고 놀랍게 나타났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었다. 오고가는 내내 열차 안에 파스한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느낌이 들었다.

공동체 전도집회 이촌연가는 가나 혼인잔치 같은 축제였다.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 아귀까지 물을 채웠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 하나님은 물 떠온 하인들의 기쁨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주셨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권사칼럼

주 예수를 믿으라



홍주희 권사
(강동 온누리교회)

부모님 맞춤형 전도집회 ‘온리 유’에 부모님의 이름을 써서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다. 교회에서 12

월 10일 부모님을 위한 초대 자리를 마련했으니 꼭 올라오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반가워하시며 참석을 약속하셨다.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집안 최초의 기독교인이 되었다. 부모님은 많은 제사를 지내야 하는 종손으로 살고 계신다. 부모님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다. 45년 전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셨을 때 “한 집안에서 두 종교를 믿으면 집이 망한다”면서 엄청난 핍박을 하셨다. 결혼 이후에는 “너는 출가외인이니까 너나 잘 믿어라”고 발을 빼셨다. 요즘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니까 예수님 믿자고 말씀드리면 “너는 예수 밖에는 할 말이 없냐?”라고 반문하셨다.

우리 어머니는 50여 년 전부터 할머니의 부탁으로 1년에 몇 번씩 절에 다니고 계신다. 금년 석가탄신일에는 제사를 우리 집으로 모셔오는 바람에 처음으로 절에 안 가셨다. 전도만 하면 시끄럽다고 손사래를 치시던 어머니가 지난 10월경에 복음을 전하니까 “자신은 이제 아무 것도 믿지 않기로 했다”고 하셨다. 엄마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조금씩 열리는 것이 보여 너무나 감사했다.

올해 아버지 연세 84세, 어머니 연세 80세이다. 부모님이 연로해지면서부터 나에게서는 부모님의 연세를 되새기는 습관이 생겼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면 기가 막힌다. 나도 이제 나이 60살을 바라보고 있다. 문상을 가는 횟수가 많아졌다. 문상을 하고 돌아올 때면 어김없이 하는 기도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아버지 영정 앞에 성도 홍남식, 성도 이귀분이라고 꼭 소개 해주옵소서.”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일점일획(一點一劃)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45년째 기도하고 있다. 해가 거듭할수록 부모님 존함을 부르며 기도하는 나의 눈물이 더 뜨거워지고 있다.

전도집회 ‘온리 유’에 참석하신 아버지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언제 끝나는지를 여쭙셨다. 다행히 어머니는 오미희 권사님의 친정어머니 관련 간증에 마음이 동하신 것 같았다. 오미희 권사님의 친정어머니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로 다가온 것 같았다. 오미희 권사님의 어머니가 어느 석가탄신일에 절에 다녀오시고는 “이제 절에 그만 갈 것이니까 마지막 인사하고 왔지”라고 말씀을 하셨다. 절에 가서 마지막 인사를 하셨다는 그 말이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다. 진지함도 느껴졌다.

테이블 리더로 정성껏 섬겨주신 장로님, 테이블까지 찾아와 진절하게 말씀해 주신 목사님의 사랑이 씨앗이 될 것이다.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받으시고 축스러워하시면서 화관을 쓰고 사진도 찍으셨다.

맞춤전도집회 다음 날 부모님께 고향으로 돌아가시기 전 예배를 드리자고 말씀드렸다. 다른 때보다 순수히 따라 하셨다. 눈물이 쏟아져 찬송을 제대로 이어갈 수가 없었다. 부모님께 자녀들이 믿는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고 말씀드리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범벅이 되었다. 부모님도 “아멘”이라고 해 주셨다. 딸이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마음이 쓰여졌을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 부모님께 이루어질 때까지 전하고 또 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것이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조중환 선교사
(국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이름 예수님을 의지하여 편지를 드립니다.

저는 열방을 품은 선교사로서 부

름받았고 현재는 세계를 품은 대한민국이 저의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최근 새로 맡게 된 사역 중 하나가 전 세계에서 오는 2백여 회원 선교사들의 기도편지를 점검해주는 사역입니다. 선교사들의 기도편지가 동역자들과 기관으로

배포되기 전에 제가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접하고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임이 실로 막중합니다. 책임은 무겁지만 그만큼 선교사들을 가까이에서 돕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보람도 큼니다.

그 동안 사역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선교사들이 보내준 편지를 읽을 때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의 마음이 선교사들에게 전달될 때 격려와 위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선교사들의 힘든 소식을 접할 때는 함께 가슴 아파하고, 승전보를 접할 때는 함께 기뻐하는 것이 기도편지 점검을 통한 멤버케어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써 이 사역을 시작한지 일 년이 다 되어갑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내는 주 2일, 나는 거의 매일 본부사무실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일단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바쁘게 일합니다. 땅 끝으로부터 온 다양한 기도제목들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숨 가쁘게 일년을 달려왔습니다. 여러 동역자님들의 변함없는 후원과 격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어 보냄 받은 곳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파이루마 번역팀 소식을 나누려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파이루마 번역팀의 리더인 가브리엘의 갑작스런 죽음 소식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은 조국 파푸아뉴기니와 그의 부족 파이루마 부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습니

다. 죽기까지 충성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였습니다. 30대 초반인데 이렇게 일찍 소천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일찍이 성실함과 헌신적인 나눔 태도로 인정 받았습니다. 지역사회는 젊은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짧은 생애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을 불태웠습니다.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파이루마 번역팀은 리더를 잃었지만 더 많은 헌신자들이 파이루마 성경 번역에 참여하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이루마 번역팀이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회복되고, 굳게 세워져 가도록, 초역된 족복음 요나, 룻기, 디모데 전서의 점검을 잘 받고, 누가복음 초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이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18절).

이것이 예수께서 둘째 아담으로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대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 번째로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 ‘더욱 많이 넘친다’입니다. 둘째 아담으로 인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과 생명의 역사가 첫째 아담으로 인해 들어왔던 죄와 사망과 정죄와 진노보다 훨씬 넘치고,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20절).

여러분, 둘째 아담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죄와 사망을 보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첫째 아담의 죄로 인해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부라부라 대책을 세우시고 가까스로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해결이라는 단어로는 예수님의 은혜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죄의 문제를 해결

한 정도가 아닙니다. 죄보다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둘째 아담입니다.

타락 이전 아담과 하와가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보다 타락 이후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이 오셔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훨씬 더 풍성하고 넘쳐납니다. 죄가 없던 에덴에서 통치하시던 하나님의 은혜보다 구속받은 이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은혜가 더욱 풍성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2017년 1월 통계를 보니까 74억 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인류의 인구는 74억 명이 아닙니다. 두 사람입니다. 인류의 인구는 인간 편에서 볼 때는 74억 명이겠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두 사람입니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님입니다. 모든 사람이 첫째 아담에 속한 사람과 둘째 아담에 속한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렇게 간단합니다.

인류는 두 아담 중에 어느 한 사람에게 속해 있습니다. 아담에게 속한 자인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지 둘 중 하나입니다. 첫째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둘째 아담 안에서 은혜와 생명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가 차이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눈으로 구분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그랬다가, 모르겠다고 그랬

다가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분명합니다. 첫째 아담에 속한 인간인지 아니면 둘째 아담에 속한 인간인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는 세례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 한 사람의 절대적 영향력에 속했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첫째 아담에 속한 모든 이들을 둘째 아담에 속한 이들로 변화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하면 첫째 아담에서 둘째 아담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고 받아들이면 첫째 아담에 속한 죄와 사망, 권세에 있는 상태에서 은혜와 생명과 영원한 축복의 둘째 아담 안으로 옮겨 가게 됩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사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입니다. 물리적, 실제적입니다.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을 경험하듯이 둘째 아담 안에서 실질적으로 은혜와 생명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기쁜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주기도문, 사도신경 새번역 및 번역 해설

주기도문(새번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호격이므로 ‘아버지여’라고 번역할 수 있으나 아버지와 의 친밀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를 붙이지 않는다.
2.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는 원문에 충실하되 기도문이므로 현대 문어체로 정중한 표현을 하기로 한다.
3.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는 ‘나라가 임하옵시며’보다 현대어법에 맞는 번역이다.
4.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는 동사를 두 번 번역할 필요가 없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번역한다.

5.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에서 ‘오늘’의 헬라어 원문은 ‘하루’를 뜻한다. 구번역 ‘오늘날’과는 다르다. 예수님이 매일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으므로 오늘이라 번역한다.

6.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는 우리에게 빚진 자 즉, 잘못한 사람과 하나님께 대한 빚 즉, 죄를 말한 것이다.

7.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는 시험과 악은 동질적인 것으로서 전반부에서는 부정적, 후반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서술한 것 뿐이다. 운율상 번역을 생략한다.

8.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에서 지금까지 쓰던 ‘대개’를 생략한다. 이 단어는 접속사 ‘왜냐하면 ~때문이다’의 뜻으로 직역하면 문장이 길어지고, ‘대개’라고 쓰면 ‘대강 말해서’인지 ‘큰 원칙을 말하는 것인지’ 의미상 분명하지 않으므로 번역하지 않는다.

9. 연결형 어미 [-고]와 [-며]는 헬라어 원문에는 앞과 뒤 단락 표현의 변별을 두고 있다. 따라서 번역상 [-며-며], [-고-고]로 통일한다.

사도신경(새번역)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는 신앙고백이기 때문에 문법상 주어가 먼저 나와야 한다.
2.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는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첫 문장을 ‘믿습니다’로 끊고, 예수 그

리스도에 대한 언급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같이 ‘나는 ~ 믿습니다’로 번역한다. ‘그 외아들’은 ‘그의 외아들’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

3.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에서 ‘그는’이라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뜻이 확실하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라고 한다. 또한 ‘잉태되시어’,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신 지’에서 굳이 존대 어법을 쓰지 않아도 된다.

4.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는 빌라도의 사형판결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뜻으로 ‘고난을 받아’로 번역한다.

5.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는 ‘장사된 지’는 ‘잉태하사’를 ‘잉태되어’로 번역한 것처럼 ‘장사된 지’로 바로잡아야 한다.

6.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는 원문에 있는 ‘아버지’가 번역되어 들어갔다.

7.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는 현행 ‘저리로서’를 현대어 ‘거기로부터’로 번역한다.

8. ‘나는 성령을 믿으며’는 성령이 오셔서 거룩한 교회를 탄생시키고 그 교회는 그 구성원인 성도를 가르치고 지킨다.

(자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맞춤특강

나침반

500회 특집 산마루교회 편

노숙인들과 함께한 나침반 500회 특집
새해를 맞아 전하는 꿈과 희망의 메시지



특별 MC 이주연 목사 (산마루교회)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웃음치료> 이임선 웃음치료사

‘웃음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선물 같은 시간’



방송 : 2018년 1월 8일 (월) 오전 11시

<하프타임의 기적> 박호근 박사 (하프타임 코리아)

‘삶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인생설계 프로젝트’



방송 : 2018년 1월 9일 (화) 오전 11시